

목포 해상케이블카 중간용역 보고서 보니

바다횡단 구간 '곤돌라' 방식 도입 주차장~승강장은 '스카이버드 카'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요

- 고힌도~유달산 총 사업비 593억원
- 평균시속 15km 시간당 480명 수송
- 일일 최대 13,600명, 연간 136만명
- 생산유발 320억원·취업유발 300명

목포시가 고힌도와 유달산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역점 추진중인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해상 케이블카의 개발방향은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개발과 다양한 관광유구 충족에 초점이 맞춰졌다.

바다횡단 구간은 '곤돌라'(gondola) 방식이 도입되고, 주차장에서 승강장까지는 '스카이버드 카'가 설치된다. 사업비는 총 5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사실은 목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해상케이블카 중간 용역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용역 무산 내용 담겼나=주요 노선은 크게 3단계로 ▲주차장~소요정 구간(0.7km)은 스카이버드 카 ▲소요정~고하도(2.38km)는 로프웨이(곤돌라) ▲고하도 용머리~용당리(3.23km)는 스카이버드 카+노레일 방식이 도입된다.

곤돌라 방식은 수송능력이 우수하고 강한 바람에도 운행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직진만 가능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또 스카이버드 카는 개별 운행방식으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고 거리제한이 없으며 다양한 코스 설계가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평균 시속 15km에 배차거리 80m로 시간당 480명을 수송할 수 있고 직선과 곡선 선형이 가능하다. 단 국내 설치가동 사례가 부족하고 충전시 전력요금에 대당 1만

환경 친화적 개발에 초점 목포경제 새 동력 기대 속 시민·환경단체 반대 계속

5000원에 달한 점이 과하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유달산 정상과 근접해 승강장이 설치되고, 상부 승강장은 목포대교와 다도해 조망이 우수한 서쪽으로 배치되며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해 승강장 시설면적과 지주 설치 최소화된다.

또 유달산 상부 승강장은 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해 보리마당이 좌적지로 잡혔다. 고하도 승강장은 용오름길 보존을 위해 후사면에 조성하고, 주차장은 공유수면 매립 등 유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케이블카 이용객은 2017년 기준으로 일일 최대 1만3600여명, 연간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수 연간 이용객 177만명 보다는 낮은 수치다. 또 투차비는 로프웨이 356억과 주차장 237억 등 총 5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타당성과 유발효과는=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B/C)이 1보다 높고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며 내부수익률(IRR)도 사회적 할인율 5.5%보다 높아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케이블카가 가동되면 생산 유발효

과 32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1억원, 취업 유발효과 300명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해상 통과 방안으로는 ▲와이어로프 최대 연신율 4% ▲해상구간 연장 1200m ▲해상지주 설치 간격 800m ▲캐빈 하부 통과 높이 EL(+) 53.0 등이 제시됐다. 지주 없이 횡단할 경우엔 해면에 1200m 높이의 지주설치가 필요하고, 와이어로프 높이는 101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박홍률 시장은 "해상 케이블카는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러가는 관광지로 전환시키는 목포 관광의 새로운 콘텐츠이고, 관광산업은 목포경제의 새로운 동력"이라면서 "목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근대문화 유산이라는 콘텐츠와 200억원이 투입되는 원도심 재생사업을 연계해 '문화·예술·역사·관광'을 재현한다면 체류형 관광지로써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부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간담화·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고, 환경단체를 참여시켜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킨다는 복안이지만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목포시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용역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아 향후 상당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광주U대회 축구 남녀경기가 열리는 목포 국제축구센터는 잔디 보식 등 성공대회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축구경기 열리는 목포 U대회 열기 고조

북한 여자팀 등 24경기 열려

잔디심기·시설 점검 등 만전

7월 3일부터 개최되는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열기가 목포시에서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U대회 축구 남녀 경기가 목포 국제 축구센터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여자 경기는 주 경기장에서, 남자 경기는 보조 경기장에서 열린다.

예선리그는 2일부터 7일까지, 본선 리그는 8일부터 13일까지 총 24경기가 펼쳐진다.

여자팀의 경우 아일랜드, 대만,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프랑스, 미국, 러시아, 콜롬비아, 체코 등이 참가해 6경기를 치른다.

남자 팀은 캐나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란, 아일랜드, 중국, 남아공, 대만 등이 참가해 6경기를 치른다. 본선 리그는 남녀 12경기 8강전까지 목포서 치러진다.

특히 4일에는 북한 여자팀 경기가 펼쳐져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목포시와 축구센터는 국제적 체육행사인 U대회를 철저히 준비해 안전한 경기 환경을 조성하고, 대회기간 중 참가국 선수단과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남은 20일 기간 동안 이번 대회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KTX역·터미널 등 교통거점은 물론 온·오프라인 다각도 홍보에 나섰다.

또 축구센터는 경기장의 취약요소를

분석하고 선수단 교통관리, 경기장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21일 조직위원회의 최종 점검을 앞둔 축구센터는 전 직원이 총동원돼 잔디를 보식하고 화장실, 샤워실, 운영본부, 프레스센터 등 부대시설 설치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박정훈 국제 축구센터 대표이사는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시설과 경기 운영 분야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 U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자 경기가 열리는 보조 경기장엔 전광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동식 전광판 임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재난 안전 전담부서 강화

정원 2명 증원·기구 개편

적극 대응체계 확립키로

목포시가 재난기능을 통합하고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 설치를 위해 재난 안전 전담부서 강화에 나선다.

목포시는 "재난안전 관련 정원 2명이 증원돼 인건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 재난 유형별 담당부서를 통합해 적극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 안전 전담부서 기구 개편안을 마련, 시의회 소관 기획복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안전행정과에 건설법제과 방재 담당이 흡수 통합되고, 과(課) 명칭도 '안전 총괄과'로 바뀐다. 신생 안전총괄과의 정원은 16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나고, 재난관리

와 방재 담당의 명칭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담당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통합관제센터는 이번에 순증 되는 인력 2명이 배치된다.

이 같은 기구 개편에 따라 도시건설국이 안전도시건설국으로 바뀌고, 안전행정복지국은 자치행정복지국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또 안전행정과는 현행 안전행정복지국 소속에서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른 도시건설국의 과(課) 순서는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배치된다. 목포시 인사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 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해 과 단위, 담당 단위 기능을 보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영농철 재능기부 봉사활동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정동기)은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희망나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직원 24명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양파밭(1983㎡)에서 수확작업을 도왔다. 봉사자원을 받은 농가는 "농촌 품삯이 올라 이종고를 겪고 있어 수확하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었다"며 "봉사자들 덕분에 적기에 출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동기 관리단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인력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당신의 가장/결혼의 가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F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의사, 현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자영업, 가사 35-64세

강남역 7번출구 70m 44년형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